

# 2025년 9월 시청자의견 반영실적

방송사명 : 여수문화방송(주)

## 1. 의견 제시 및 조치현황

구 분	의견제시	조치현황	처리비율
9월	9	9	100%

## 2. 시청자 의견 제시에 대한 조치내용

연번	접수 일자	의견제시 내용	접수경로	해당부서	조치내용
1	9/3	<p>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멋진 화재진압 칭찬사례 제보합니다.</p> <p>안녕하세요</p> <p>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의 멋지고 훌륭한 칭찬 사례가 있어 제보드립니다.</p> <p>9/1일 월요일 5시30분~6시경 서교동관제센터 주차장 2층에서 차량 조수석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 순식간에 차량 앞쪽 전체가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p> <p>초반에 화재가 발생했을 땐 미미한 연기였지만 불이 커지고 연기가 자욱해져 소방벨이 울리는 즉시 서교동관제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3분이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않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 화재진압을 했습니다.</p> <p>여직원 2 남직원 1분이 근무 중이셨는데 여직원 1분이 소화기로 1차 화재진압을 하고 뒤이어 남직원 1분이 소화전으로 2차 진압을 하고 남은 여직원 1분께서 주차장 차량 통제를 하셨습니다.</p> <p>그 결과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화재진압이 되었고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p> <p>당시 근무하던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아니었으면 인명피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이</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소중한 제보 고맙습니다</p> <p>어려운 상황에서도 여수도시공단 직원의 침착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미담 사례로 보입니다</p> <p>제보 감사 드리고 당시 상황 취재해 뉴스로 처리할지 판단하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p>훌륭한 대처로 인해 피해차량만 전소되고 다른 피해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p> <p>갑작스럽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대처를 잘해낸 직원 3분의 용기와 훌륭함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습니다.</p> <p>감사합니다.</p>			
2	9/4	<p>왜 여수 mbc에서 일본관광을 홍보해주시나요?</p> <p>볼때마다 일본 오늘도 쇼도시마 홍보해주고 일본을 찬양이라도 하려는 건지?</p> <p>좀 불쾌하네요.</p> <p>물론 좋은건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일본은 그닥이요.</p> <p>다 아시지 않습니까?</p>	홈페이지	보도센터	<p>시청자 의견 감사드립니다</p> <p>내년 여수 섬박람회를 앞두고 '잊혀진 섬 보물섬으로' 라는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p> <p>남해안에 많은 섬들의 인적,물적,스토리를 잘 활용해 관광화 하는 길을 열어 섬에서 떠나는 인구를 붙잡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입니다</p> <p>그 일환으로 국내 섬 뿐만 아니라 섬 국가인 일본의 선진 개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 섬들도 배울점은 없는지 들여다 보려는 의도입니다</p> <p>일본 섬을 홍보하려는게 아니고요</p> <p>이달말에는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스웨덴 섬들도 현지 취재해 보도할 예정입니다</p> <p>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3	9/12	<p>여수MBC가 수행처인가?</p> <p>여수MBC 창사 55주년 기념하는 프랑카드가 회사 입구에 걸렸다.</p> <p>"공영방송 55주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p> <p>방송사에서 무슨 정진을 하겠다는 말인가?</p> <p>방송사로서 제 기능을 다 하며, 지역사회와 화합할 생각은 않고 무슨 정진 타령이냐 말이다.</p> <p>하기사 막상 회사에 올라 가 보면 절간에 와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너무 너무 조용하다.</p> <p>모두 수행중인 모양이다.</p> <p>부디 정진 잘 해서 도업을 이루기 바란다.</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의견 감사합니다.</p> <p>회사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사옥 노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p> <p>또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사옥 이전 논란 등에 대한 여러분의 반발과 우려들도 모두 잘 경청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p> <p>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향후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p>
4	9/13	<p>순천 MBC로 빠른 이전 바랍니다</p> <p>빨랑 이 사 가 버시다</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의견 감사합니다.</p>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향후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
5	9/13	<p>여수mbc 직원의 99%가 순천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p> <p>요즘 여수 여기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어서 검색을 좀 해보니 지역 신문에 사내 직원의 99%가 순천 이전에 찬성하고 있다는 여수mbc 관계자 인터뷰가 있네요?</p> <p>참 여수 시민에 대한 예의나 애정이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직원들이 찬성하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p> <p>안그래도 임직원들 오래전부터 순천으로 옮기고 싶어했다는 소문까지 나도는 판국에 참 눈치도 없이 인터뷰를 하고 다니시네 오만정 다 떨어지는 여수mbc 가려거든 언플 그만하고 빨리 떠나십시오</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향후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p> <p>의견 감사합니다.</p> <p>회사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사옥 노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p> <p>또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반발과 우려들도 모두 잘 경청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p> <p>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향후 회사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습니다.</p>
6	9/14	<p>무성의하게 느껴지는 자막 표기실수를 문제 제기합니다.</p> <p>저는 강릉시민입니다. 9월 13일 (토) 오전에 mbc강원영동에서 '트로트 클라쓰'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더군요. 이 프로는 검색을 해보니 여수mbc에서 제작한다고 해서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날 방송자막에서 큰 글씨로 '연습생로'라고 표기하셨는데요.'연습생으로'가 바른 표현입니다. 해당 여성가수가 기획사에서 연습생으로만 지내다가 정식 데뷔를 하지 못했다는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분께서 자막표기를 하셨는지 이런 허탈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p>	홈페이지	콘텐츠센터	<p>안녕하세요</p> <p>여수MBC입니다</p> <p>지적해주신 자막 오타자 부분은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는 제작 과정에서 더욱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p>
7	9/15	<p>15회 가족콘서트 분실물</p> <p>분실물 문의 &lt;비밀글&gt;</p>	홈페이지	콘텐츠센터	<p>안녕하세요</p> <p>분실하신 목걸이 찾았습니다. 연락처를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p>
8	9/21	<p>방송국 팔아먹는 매국노를 몰아냅시다</p> <p>호소문</p> <p>여수 시민 여러분 mbc를 지켜주십시오 20년전 kbs가 순천으로 가더니 이번에는 mbc마</p>	홈페이지	경영센터	<p>안녕하세요</p> <p>회사는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열악한 경영 환경과 사옥 노후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p>

	<p>저 순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에 놀아난 순천시장과 그에 놀아난 여수 mbc사장을 몰아냅니다 전남 제일의 도시인 여수의 자존심을 다시 세웁시다 mbc는 여수에 있어야 합니다 55년을 함께한 mbc를 여수시민이 지켜냅니다</p> <p>mbc는 공영방송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여수mbc의 대주주는 서울 본사이고 본사의 대주주는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익법인입니다 주식 한주도 없는 여수mbc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mbc를 순천에 팔아먹는다는 말입니까 오는 23일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가 열립니다 다음날 24일에는 mbc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6일에는 순천시와 여수mbc가 최종적으 로 이전 협약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쿠데타 모의하듯 은밀하게 추진되어온 것입니다 이를 여수 시민이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내버려두면 영영 mbc는 순천으로 뺏기는 것입니 다</p> <p>여수 밤바다가 어떻게 순천 밤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수mbc가 어떻게 순천mbc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이면 섬 박람회 열리는 여수를 버리고 mbc가 어떻게 순천으로 갑니까 반세기를 함께한 여수시민을 버리고 mbc는 왜 배신자가 되려 하는 것인지요 무엇이 부끄러워 여수mbc는 순천이전을 비밀리 에 추진하는 것입니까 방송국 팔아먹는 매국노 이호인사장을 몰아냅니다 이완용행세하는 박광수 경영센터장을 몰아냅니다 꿀먹은 병어리 노조지부장 김종수를 탄핵합니다</p>			<p>다. 또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반발과 우 려들도 모두 잘 경청하며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잘 참고하겠습니 다.</p>
--	--	--	--	--

		<p>23일 서울로 가서 향의합시다 방송문화진흥회와 mbc본사 앞에서 목청껏 외칩시다 mbc는 여수 꺼다</p>			
9	9/26	<p>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라남도과 여수상공회의소의 어의없는 행정처리를 고발하고자합니다.</p> <p>안녕하십니까?</p> <p>저는 여천산단협력업체에 근무하다 지난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실직 상태로....여수 산단의 고용불안과 힘든 경기 실정을 몸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민입니다.</p> <p>지역경기불황의 힘든사정에 지난 8월 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는 석유화학업종 고용회복 프로젝트 근로자 안심패키지 지원사업에</p> <p>새벽 05:00에 상공회의소 현장에서 5시간이상 줄을 서서 지원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안되는 금액이지만, 현재 실직된 상태로 경제적 여건이 많이 힘든상태에 큰 힘이 될거라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한데...어제(9월 26일)함께 신청했던 동료가 지원금이 나왔다고 하여 조회를 해보니 저는 지급이 안되었더군요...혹시나 늦나 싶어 몇번을 은행조회를 해보았습니다만, 지급이 되지 않아...날을고박새고 오늘(9월 27일) 여수상공회의소에 전화 문의를 하려고 기다리던중...아침 문자가 왔습니다.고용보험 변동사항으로 부적격!! 처리되었다고하네요.</p> <p>지원금 지급되기만을 기다리다 청천벽력같은 문자로 떨어지는 마음으로 상공회의소 전화해서 담당자 통화했더니....전남도청에서 지침을 지급하는 날 기준(9월 26일)실직된 상태라 지원한 사업에서 부적격처리되어 지급이 안된다고...</p> <p>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제가 몇번을 지원사업 공고문을 봤지만,,,지급처리되지않는 사유!~~~지급하는날 기준 고용보험 변동사항이라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p> <p>이런 말도 안되는 사유로 그 고생을 하며....지원금신청을 했는데...이 사업의 취지가 여수시민 고</p>	홍페이지	보도센터	<p>안녕하세요 여수MBC입니다</p> <p>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p> <p>여수산단 고용회복 프로젝트에 관해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p>

	<p>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해당하는 내용도 없고...해당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이유로 지급을 해주지 않는다니 이게 무슨 말이되는 얘기입니까?</p> <p>그리고, 이사업에 지급처리일이 최대 45일!!!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8월 1일날 신청했는데..업무처리가 빨랐으면 8월 31일 이전에 처리했다면....해당되었을 건데....지원자가 많아서....업무처리가 늦어져서 공고일 기준이 한참지나고 나서야 처리하면서.....아무런 통보나 내용없이 자격요건을 바꿔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행정이고 지원사업이라는 겁니까?</p> <p>만약, 이런 내용이였다면....하다못해 저같은(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사람은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자격을 유지했을 겁니다.한데,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이런식의 행정처리로 그러지 않아도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더 낙심과 분노만 키우는 건지도 대체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p> <p>단수히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만해서 분노하는 건 아닙니다. 이 지원사업이 당시(8월 1일) 여수에서는 상당한 이슈였고,,그만큼의 여수 경거나..고용불안에 대한 어려움이 현장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40만원 150만원이 어떤이에게는 적은돈이겠지만,,당시 현장에서 전날부터 나와서 줄을서고 서류를 들고 퇴약별에서 그 몇시간씩 기다려가며 지원했던 사람들에게는 절실했었습니다.당시 그 더위에 기다리다 쓰러진 사람들도 있었고, 모든일을 제쳐두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했던 많은 절실한 사람들의 한이 었습니다.</p> <p>이런 어이없는 행정으로 저같은 사람들에게는 비참함만 더 느끼게 하는 이런 행정처리를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p> <p>어디 하소연 할곳도 없고...암담한 마음에..저같은 분들이 계시다면...함께 민원제기를 하고 싶어..이렇게 지역 언론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p> <p>아무리 당시 지원사업 공고문에도 지급일기준 고용보험변동사항이 있으면(실직)부적격!!으로 처리</p>		
--	---	--	--

	<p>안된다..라는 문구는 지금도 찾아볼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억울하신 분들이 있으면 함께 민원제기했으면 합니다.</p> <p>지역방송에서도 저같은 억울한 사연에 귀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사업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행정처리!! 여전한 공무원들의 업무 방식!!)</p>			
--	--	--	--	--